국제뇌교육협회 201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보고서

평화교육 뇌교육

Brain Education As A Tool of Peace Education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이자 유엔공보국 정식지위 비영리단체인 국제뇌교육협회가 창립 이래 수행한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UN-M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와 한국에서의 공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완수를 위한 뇌교육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공유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기간 : 2008년 1월 ~ 2014년 6월
국제뇌교육협회의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후 첫 보고서로, 글로벌 프로젝트는 뉴욕사무소의 설립시점인 2008년 이후의 활동을 포함했습니다.
보고 주기 : 2년

웹사이트 공개 : www.ibrea.org 상시 공개
문의 : 국제뇌교육협회 사무국 +82-2-3452-9046 prmir@ibrea.org

참고문헌

- 《엘살바도르 뇌교육 파일럿프로젝트 연구평가보고서》. 엘살바도르 외교부, 2011.
-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 뇌교육 컨설팅 및 전문교원 양성》. 대한민국 교육부, 2012.
-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뇌교육 평가보고서》. 카멘 롤란드, 2012.
- 《뇌교육 가이드북》. 국제뇌교육협회, 2012.
- 《뇌교육 가이드북 —현장사례 편》. 국제뇌교육협회, 2013.

표지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은 광고인 이제석 씨가 국제뇌교육협회에 재능기부한 광고로,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뇌교육의 의미를 상징화한 작품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 | 201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보고서

평화교육 뇌교육

Brain Education As A Tool of Peace Education

CONTENTS

1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지성명 06

2 국제뇌교육협회

1) 단체소개 10
2) 조직운영 11
3) 파트너십 12
4) 국제협력 15

3 평화교육으로서의 뇌교육

1) 뇌교육이란 19
2) 뇌운영시스템과 뇌교육 5단계 20
3)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뇌교육의 역할 21
[SPECIAL PAGE] 뇌 선언문 23

4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뇌교육 글로벌 프로젝트

1) 교육원조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26
2) 뇌교육 국제컨퍼런스 개최 27
- 2008년 국제뇌교육컨퍼런스
- 2009년 AMR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 각료급 회의 — 뇌교육 세션
- 2011년 뉴욕시 뇌교육의 날 2주년 기념 뇌교육 세미나

3) 엘살바도르 공교육에 뇌교육 도입 31
- 2011년 엘살바도르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
- 2012~13년 한국 교육부 공적개발 원조(ODA) —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
- 2013년 엘살바도르 교육부 — 뇌교육 전문교원 양성 전국 확대 실시

4) 2011년 필리핀 타가이타이 시 교원 대상 뇌교육 워크숍 36
5) 2012~13년 라이베리아 뇌교육 보급사업
— 시범 프로젝트 수행과 KOICA 민간사업 발굴 지원 37
6) 2013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뇌교육 프로젝트와 지구시민운동' MOU 체결 38
7) 2014년 파라과이 교원 대상 뇌교육 국제연수 39

5 한국 공교육 지원사업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 42
2)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개최 44
• 행사개요
• 주요 사례 발표
21세기 뇌융합시대 — 뇌교육희망보고서
중남미 엘살바도르에 꽃피운 뇌교육 프로젝트
교육부 글로벌 교육원조 경과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한국, 충북 형석고등학교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 한국, 울산 강남중학교
두뇌친화적 환경과 행복교실 만들기 — 한국, 대전 유평초등학교
교사들의 꿈과 열정을 회복하는 교사 힐링캠프
[SPECIAL PAGE] 해피스쿨 캠페인이란?

6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발행 – 평화실현을 위한 뇌 활용지식의 대중화 61

7 지구시민운동 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지 성명

"국제뇌교육협회는 21세기 인류 미래의 키워드인 '뇌'가 지닌 무한한 자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공식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공보국 정식지위 NGO기관으로서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뇌교육은 인간 뇌 속에 내재된 인성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평화기술(peace technology)'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는 인간이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문명을 만든 것이 인간 뇌의 무한한 창조성이듯, 인류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바로 인간의 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대문헌인 《삼일신고—신훈 편》에는 '자성구자 강재이뇌(自性求子 降在爾腦)'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본성에서 찾으라. 이미 너희 뇌 속에 내려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21세기를 '뇌의 세기(Century of the Brain)'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의 마지막 영역인 뇌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뇌에 대한 심층적 연구성과는 학문의 발전은 물론, 건강,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뇌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진보가 가져다준 인간 뇌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은 결국 올바른 뇌의 활용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뇌를 개발하느냐 그리고 스스로의 뇌력을 얼마나 인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뇌교육은 인간 뇌의 정보처리기술로서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대상만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인지할 때, 인류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열쇠가 우리의 뇌 속에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신문화 속에는 생명의 경외감과 자연친화사상을 강조한 '천지인(天地人)' 정신,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쌍수(心身雙手)'의 생활문화, 인간 의식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을 갖춘 '효충도(孝忠道)'의 철학과 '정충기장신명(精充氣壯神明)'의 수련체계, 그리고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평화철학이 있습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은 5천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오랜 정신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한 학술적 탐구와 뇌과학적 연구, 30여 년간의 건강, 교육, 자기계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적용과정을 거쳐 세계 최초로 뇌교육 분야의 4년제 대학, 석박사 대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학문적 체계화를 이루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인류의 의식과 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뇌교육을 평화기술로서 국제사회에 알려갈 것입니다. 특히, 몸과 마음과 의식이 한창 성장하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뇌교육은 인간 뇌의 평화성을 회복하는 평화교육 기술입니다.

– 일지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www.ilchi.net

UNGC 10대 원칙

The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1

국제뇌교육협회

1. 단체소개 ———— 10
2. 조직운영 ———— 11
3. 파트너쉽 ———— 12
4. 국제협력 ———— 15

01 단체소개

단체명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협회장	이승헌
설립년도	2004년
소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11 캐럴라인타워 8
주요사업	– 뇌 기반 교수 · 학습법 연구개발 – 뇌 기반 교육에 관련된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강연회 개최 – 협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활동 – 뇌 기반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홍보 및 후원활동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공식 회원사
• 유엔공보국(UD-DPI) 정식지위 NGO
• 뇌교육 글로벌중추기구, 비영리국제단체

국제뇌교육협회는 21세기 인류 미래의 키워드인 '뇌' 자산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뇌교육의 개발 및 보급, 인증,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2006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첫 국제뇌교육컨퍼런스를 개최했고, 2009년 2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회원사가 되었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로 등록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미국 비영리기관 IBREA Foundation 설립을 계기로, 뇌교육 프로그램 국제사회 보급, 국제뇌교육인턴십 · 국제뇌교육컨퍼런스 · 세미나 · 두뇌올림피아드 IHSPO 국제대회 개최, 〈BrainWorld〉 정간물 발행 등을 통해 국제적인 뇌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두산대백과사전

02 조직운영

국제뇌교육협회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시민사회기구(Civil Society Organization)입니다. 사업승인과 운영결산은 총회와 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14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산하 지정 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아, 웹사이트를 통해 재정을 공개하고 더욱 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해외지부

미국(IBREA-US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866 United Nations Plaza, Suite 479, New York, NY 10017
www.ibreaus.org
문의) info@ibrea.org

일본(IBREA-Japan)

NPO法人日本教育協會
愛知懸名古屋市北区山田町三丁目62番地 朋栄ビル9F
jp.ibrea.org

03 파트너십

국제뇌교육협회는 과학, 교육, 학술, 자기계발, 역사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내 전문기관들과의 자문협력을 맺어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영역별 뇌교육 분야 인증기관을 두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문협력기관

한국뇌과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Brain Science

1999년 과학기술부에 재단법인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인간 뇌의 활용과 개발 및 뇌교육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뇌 연구기관입니다.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임상 및 효과 연구를 중점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뇌의 고등감각 인지능력인 HSP의 개발 및 연구기관기이도 합니다.

뇌교육 전문지 격월간 〈브레인〉을 발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두뇌올림피아드 IHSPO를 창설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로부터 유엔협의지위를 부여받아 미국 뉴욕에 사무소(KIBS-USA)를 두고 유엔 NGO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ibs.re.kr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뇌교육의 석 ·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학원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뇌교육학과, 뇌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뇌교육 전문학술지 〈JBE 뇌교육연구〉 발간을 통해 뇌교육의 학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뇌교육의 철학과 원리, 실제적 방법론 등 영역별 학위과정으로 국학과, 뇌교육학과, 평화학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ube.ac.kr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lobal Cyber University

뇌융합 학문분야인 뇌교육을 배우는 4년제 학사과정으로 2011년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처음 뇌교육융합학부가 개설되었습니다. 뇌과학을 통한 뇌에 대한 이해, 뇌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철학탐구, 뇌교육적 방법론, 뇌교육의 미래 전망과 적용, 뇌 발달 프로그램 개발 등 두뇌활용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총체적으로 시도하는

전공으로, 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뇌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홈페이지 www.global.ac.kr

(사)국학원

한민족 고유의 역사 · 문화 · 철학을 연구, 교육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전당입니다. 2002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민족정신 교육기관으로, 천안에 본원을 두고 전국 16개 광역시 · 도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브라질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군 사관생도와 특전사,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150만 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홈페이지 www.kookhakwon.org

(사)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YMCEA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Youth Mental Health Character Education Association

'청소년 인성, 뇌 안에 답이 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홍익인간 철학이 있는 인성교육 ▲두뇌 창의성을 높이는 인성교육 ▲21세기 뇌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단체. 21세기 뇌과학을 바탕으로 신체, 정서, 인지학습간 통합적 교육을 추구하며, 뇌교육을 통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youthinsung.org

인증기관

국제뇌교육협회는 교육, 건강, 문화 등의 영역에서 뇌교육의 교육철학을 지지하고 뇌교육 보급에 동참하고 있는 비영리/영리단체들을 회원사 겸 인증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 **지역별뇌교육협회 :** 뇌교육강좌, 연수, 해피스쿨 등 뇌교육 보급 비영리단체. www.youthinsung.org
- **지구시민운동연합 :** 지구인철학, 지구시민운동 전개 비영리민간단체. www.earthact.org
- **㈜HSP컨설팅유답 :** 기업교육 HRD 뇌교육 인증기관. www.u-dap.com
- **㈜키즈뇌교육 :** 유아교육 뇌교육 인증기관. 전인적 교육을 위한 체험형 유아 두뇌발달 프로그램 유아교육기관 제공. www.brainddori.com
- **㈜BR뇌교육**
  아동/청소년 뇌교육 인증기관. 뇌교육 5단계에 기반한 체험적 교육방법 적용. www.brainedu.co.kr
- **㈔한국뇌교육원**
  해피스쿨, 청소년 인성교육, 뇌교육 교원연수 전문기관. www.hanedu.org
- **브레인트레이닝센터**
  성인 스트레스 조절 및 뇌 기반 맞춤식 건강관리 및 트레이닝. www.brainhhsp.com
- **BR집중력의원**
  건강관리 뇌교육 인증기관. 집중력, 정서조절, 뇌기능 향상 두뇌전문. www.attentionclinic.co.kr
- **㈜단월드**
  기체조, 뇌호흡, 브레인명상 등 뇌과학 기반 명상교육기관. www.dahnworld.com
- **㈜브레인월드코리아**
  뇌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공 및 웹사이트 운영. www.brainworld.com
- **㈜한문화멀티미디어**
  뇌 관련 전문 출판사. www.hanmunhwa.com
- **㈔전국국학기공연합회**
  국민 건강증진과 인성함양을 위해 국학기공을 국민생활 체육으로 보급. dahn.sportal.or.kr

04 국제협력

2009년 유엔글로벌콤팩트 공식회원사 승인

국제뇌교육협회는 국제사회 공헌에 더욱 앞장서기 위해, 2009년 2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 이승헌 회장은 "2008년 1월 8일 미국 뉴욕 시가 '뇌교육의 날'을 제정하는 등 뇌교육은 인간 뇌가 가진 근본가치를 회복하고 시민의 건강을 높이는 체험적 교육방법론으로 미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노력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뉴욕본부로부터 공식 가입승인을 받은 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도 정식등록을 마쳤습니다.

2010년 유엔공보국 NGO 정식 지위 승인

국제뇌교육협회는 2010년 6월 30일, 유엔공보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DPI)에 공식 협력 NGO로 승인받았습니다.

유엔공보국은 1947년 설립된 이후, 세계의 NGO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일해오고 있습니다. 유엔공보국에 공식적으로 가입된 NGO의 대표들은 유엔본부 출입자격을 부여받으며, 매주 유엔에서 열리는 NGO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연례 NGO 컨퍼런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엔의 활동 및 세계 이슈와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공보국 NGO 정식지위 승인을 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기구, 정부, 비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세계평화를 이루는 도구로서 '뇌교육'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의 비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ive Happily

2

평화교육으로서의 뇌교육

1. 뇌교육이란 — 19
2. 뇌운영시스템과 뇌교육 5단계 — 20
3.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뇌교육의 역할 — 21
[SPECIAL PAGE] 뇌 선언문 — 30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0년, 저는 유엔본부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밀레니엄 세계평화 회의' 참석차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평화의 기도'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신은 지구를 만드셨지만 지구를 번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평화의 기도'를 낭독할 때 저는 결코 기도만으로 끝내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만들어 반드시 다시 그 자리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27년 전, 제가 삶에 대한 근본 물음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체험했던 강력한 뇌 현상에서 깨달았던 선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평화 실천을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뇌교육'입니다."

–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 2008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뇌교육컨퍼런스 환영사 중 –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01 뇌교육이란

"뇌교육은 건강, 행복,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 인간 뇌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교육입니다."

21세기 뇌융합시대, 융복합적 학문

뇌교육의 태동은 인류과학의 정점이라 할 21세기 뇌과학의 발달에 따라 뇌융합시대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인간 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시대적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이란 '뇌 관련 제반 지식을 활용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자각하고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학, 원리, 방법을 연구하는 융복합적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뇌를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라 모든 힘을 기울여 활용하고 개발해야 할 교육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동서양 융합, 서양 뇌과학과 동양 정신문화의 접목

개인적 차원에서 뇌교육은 뇌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뇌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행복, 가치실현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1900년대부터 이루어진 뇌과학의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작용이라고 여겨졌던 사고, 집중력, 정서작용 등이 모두 뇌의 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뇌교육은 이러한 뇌과학적 연구성과와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가 지닌 핵심원리와 체계를 접목해, 뇌를 개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교육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평화기술, 체험적 방법론

사회적, 인류적 차원에서 뇌교육은 뇌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함을 자각하고 평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체험적 평화교육입니다. 뇌교육은 인간 뇌의 중심가치를 '평화'와 '지구'에 둠으로써 개개인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식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여타 교육과는 달리, 뇌교육은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원리와 체험적인 방법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인간완성학, 홍익인간 평화철학

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홍익인간의 양성입니다. 홍익인간이란 한민족 고유의 정신문화적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평화와 공존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인간 유형입니다. 이러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교육이념과도 상통합니다.

한국에서 정립된 뇌교육은 한민족 고유의 인간관, 자연관, 교육관을 담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홍익인간(弘益人間)'에 담긴 인간학으로서의 뇌철학,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했던 심신쌍수(心身雙修)의 생활습관, 한민족의 선도문화 속에 담긴 인체 순환원리와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원리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뇌교육은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미래 자산인 뇌과학을 통해 정립된 21세기 인간완성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02 뇌교육 5단계와 뇌운영시스템 BOS

오랜 기간의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데이타를 체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접목해 집대성한 것이 바로 뇌교육의 통합적 교육시스템 BEST(Brain Education System Training) 입니다.

뇌교육은 연령별, 계층별, 영역별로 총 360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며, 두뇌건강, 자기계발, 학교교육, 노인건강 등 그 활용분야도 다양하며 모든 개별프로그램은 뇌교육 5단계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교육은 인간 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운영원리를 담은 뇌운영시스템 BOS(Brain Operating System)에 기반하고 있으며, 뇌교육의 핵심원천기술인 BOS는 오랜 기간 인간 뇌의 근본가치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해온 이승헌 회장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20세기 컴퓨터운영시스템 OS가 인간 생활의 편리를 가져왔다면, 21세기 뇌운영시스템 BOS는 잃어버린 인간 뇌의 근본가치를 회복하는 해법을 제공하며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휴먼테크놀러지(Human Technology, HT)'의 핵심기술로 자리해 가고 있습니다.

뇌운영시스템 BOS (Brain Operating System)

인간 두뇌의 통합적, 균형적 발달을 가져오는 BOS는 1단계 Brain Sensitizing(뇌감각깨우기), 2단계 Brain Versatilizing(뇌유연화하기), 3단계 Brain Refreshing(뇌정화하기), 4단계 Brain Integrating(뇌통합하기), 5단계 Brain Mastering(뇌주인되기)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 BOS는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진 뇌의 기능들을 한 단계씩 활성화하는 동시에 회복해가는 것에 있습니다.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고, '회복 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기능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들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03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뇌교육의 역할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뇌 속에 담긴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 속에 '평화'와 '지구'라는 정보가 중심가치로 자리할 때 비로소 인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인간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뇌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지만,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은 실질적인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냅니다. 뇌교육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개개인이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원리와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을 위한 인간의 의식변화에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체험적 방법론을 통한 뇌의 실제적 변화 창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듯, 신체의 건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습태도의 기초입니다. 뇌교육에서 개발한 다양한 뇌체조 프로그램은 긍정적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뇌파진동, 에너지 명상 등 뇌교육의 자기성찰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자존감과 정서조절 능력이 길러집니다.

교사는 유아 및 청소년기의 두뇌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지식과 방법론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식 위주의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체험적 교육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2. 아동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아동 인권 중심의 교육

아동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식전달과 획일적인 평가 위주의 교육은 대다수의 아이들을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며, 나아가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합니다.

뇌교육은 경쟁과 비교가 기준이 아니라, 내면 성찰을 통한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뇌교육 5단계에 따라 자신이 설정한 가치와 목표실현을 위해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해피스쿨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진로/인성 프로그램을 적용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늘고, 이로 인해 학교가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로 바뀌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3. 지구의 가치,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교육

인류의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생명의 토대로서의 지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전 지구적 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뇌교육은 홍익인간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뇌교육은 아

동이 홍익인간의 가치에 대한 열망이 내재함을 체험하고, 현실 속에서 이 같은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2008년부터 국제뇌교육협회 제안으로 펼쳐지고 있는 해피스쿨 캠페인은 이러한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원리와 문화를 한국 공교육 제도 속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6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며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뇌 선언문]

2001년 6월 15일 '인간, 지구, 뇌'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린 제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에 전 세계의 석학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승헌 협회장을 비롯해 엘 고어, 헤나 스트롱 등 세계의 석학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지구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전제하는 이 지구인 선언문을 통해 뇌교육의 철학적 바탕이 공식화되었고, 이 선언문은 나중에 뇌 선언문으로 발전했습니다.

나는 내 뇌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I am the master of my brain.

나는 나의 뇌가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has infinite possibilities and creative potential.

나의 뇌는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는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has the right to accept or refuse
any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it is offered.

나의 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함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loves humanity and the earth.

나의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함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desires peace.

Take Back Your Brain!

What is Brain Education?
How can it help?
ILCHI LE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ursday, January 12, 2012

18(수)
6:14
유엔본부에서 뇌교육 확대방안 논의

3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1. 교육원조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 26

2. 뇌교육 국제컨퍼런스 개최 — 27
   - 2008년 국제뇌교육컨퍼런스
   - 2009년 AMR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 각료급 회의 — 뇌교육 세션
   - 2011년 뉴욕시 뇌교육의 날 2주년 기념 뇌교육 세미나

3. 엘살바도르 공교육에 뇌교육 도입 — 31
   - 2011년 엘살바도르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
   - 2012~13년 한국 교육부 공적개발 원조(ODA)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
   - 2013년 엘살바도르 교육부 — 뇌교육 전문교원 양성 전국 확대 실시

4. 2011년 필리핀 타가이타이 시 교원 대상 뇌교육 워크숍 — 36

5. 2012~13년 라이베리아 뇌교육 보급사업 — 시범 프로젝트 수행과 KOICA 민간사업 발굴 지원 — 37

6. 2013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뇌교육 프로젝트와 지구시민운동' MOU 체결 — 38

7. 2014년 파라과이 교원 대상 뇌교육 국제연수 — 39

01 교육원조를 통한 글로벌파트너십 참여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 미주뇌교육협회(IBREA-USA)를 설립하고, 2008년 국제뇌교육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뇌교육 보급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해왔습니다.

이후 매년 유엔본부에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해, 교육 · 인권 · 평화 등 유엔의 주요 목표를 주제로 뇌교육의 활용방안 및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나 라이베리아, 파라과이 등 개발과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의 유엔 대표부와 교류하며 교육원조 가능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이미 엘살바도르에는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뇌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라이베리아는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 후 전국으로 뇌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뇌교육협회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간-정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원조를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02 뇌교육 국제컨퍼런스 개최

2008 국제뇌교육컨퍼런스

행사개요

- 주제 : 교육의 미래, 지구의 희망(The Hope of Education and The hope for the Earth)
-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뇌과학연구원
- 일시 : 2008년 6월 20일
- 장소 : 미국 뉴욕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4
- 참가대상 : 10개국 유엔 인사와 교육자, 과학자 500여 명

주요 프로그램

–'뇌교육과 인권' 주제발표

- 발표자 : 미주뇌교육협회 이성원 박사, 울프 레이몬드 자마이카 대사, 헬린 고슬린 유네스코 뉴욕의장, 하니파 유엔경제사회국 NGO의장

–뇌교육 응용 세션

-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뇌교육' 제시 존스 교수(캘리포니아 플러튼대학교)
- '내면으로부터 배우는 교육' 워링턴 파커 미주뇌교육협회 부회장

–'뇌를 활용한 평화의 문화교육' 주제강연

- '신경과학, 교육, 그리고 문화' 안토니오 다마지오
- '의도하는 대로 뇌를 움직이는 방법' 질 테일러 박사
- '뇌교육, 인류의 희망' 국제뇌교육협회 이승헌 회장

–뇌교육 비전 선포식

- 유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뇌 선언문 선포
- 국제뇌교육협회 비전 제시

'교육의 미래와 지구를 위한 희망(The Future of Education and The Hope for the Earth)'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컨퍼런스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해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그에 대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미국에서 대안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뇌교육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인류평화가 교육을 매개체로 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엔본부에서 열린 뇌'를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니파 유엔경제사회국 NGO국장, 리베라토 바티스타 유엔NGO협의체 의장, 헬린 고슬린 유네스코 뉴욕 의장, 박인국 한국 유엔대사 등 50여 명의 유엔 저명인사들이 참석했고, 오스카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뉴욕 상원의원(현 국무장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 많은 국제 인사가 축사를 보내오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는 뇌교육과 인권'세션과 뇌교육 응용'세션으로 나뉜 다양한 의제 발표가 이어졌고, 오후 특별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 질 테

▲왼쪽부터 국제뇌교육협회 이승헌 회장,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박사, 질 볼테 테일러 박사

▲ 왼쪽부터 헬린 고슬린 유네스코 뉴욕의장, 울프 레이몬드 자메이카 유엔대사, 리베라토 바티스타 유엔NGO연합체(CONGO) 의장

일러 박사 그리고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등의 강연과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는 '뇌교육과 인권'세션과 '뇌교육 응용'세션으로 나뉜 다양한 의제 발표가 이어졌고, 오후 특별 세션에서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 질 테일러 박사 그리고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회장의 강연과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2009년 AMR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 각료급 회의 — 뇌교육 세션

행사개요

주제 : 공공건강에서 정신 건강 향상(Promoting Mental Health in the Context of Global Public Health)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뇌과학연구원, 유엔 NGO 협의체, 유엔-NGO-IRENE
일시 : 2009년 7월 6일
장소 :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대상 : 유엔 관계 인사, 국제사회의 정신건강 분야 단체 및 전문가 100여 명

이번 국제세미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 각료급 회의인 AMR(Annual Ministerial Review) 회기 중에 개최되어 유엔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뇌교육 세션에는 100여 명의 유엔 관계 인사들과 국제사회의 정신건강 분야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AMR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어 2007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 각료급 회의로 뉴욕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유엔이 추구하는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MDG) 완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최자인 이승헌 회장(국제뇌교육협회)과 리베라토 바티스타 의장(유엔NGO협의체)을 비롯해, 하니파 메조이 회장(유엔-NGO-IRENE), 제니스 웨츨 박사(국제사회복지사협회 대표), 사에다 아그레비 회장(튀니지어머니협회), 마리아나 원스턴 박사(국제뇌교육협회 연구위원), 켄달 호 박사(브리티시콜럼비아의과대학), 톨킬 클링버그 박사(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등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인간의 뇌는 생리학적인 의학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 인류 미래의 최고 자산이며, 정치 · 사회 · 경제 모든 활동이 뇌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이제 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뇌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시작된 뇌교육은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회기 중 개최되는 이번 제네바 국제세미나는 인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한국의 뇌교육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뉴욕시 뇌교육의 날 2주년 기념 뇌교육 세미나

행사개요

주제 : Brain "Education for All": How to Promote "The six Education For All goals(EFA)"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뇌과학연구원
일시 : 2011년 1월 7일
장소 : 미국 뉴욕 유엔본부
대상 : 21개국 유엔대표부 외교관들과 40여 명의 NGO 관계자

이번 세미나는 2009년 1월 8일 뉴욕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선포했던 '뉴욕시 뇌교육의 날' 2주년 기념 행사인 동시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2011년 연례 각료급 회의 주제인 '교육'에 대한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유엔경제사회이사회 NGO 공식활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는 하니파 메조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NGO 전국장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닝에서는 라이베리아 차석대사가 '뇌교육의 날'을 축하하면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와 뇌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네스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The six Education for All goals(EFA)'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뇌교육이 EFA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하는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전쟁이라는 참사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뇌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 탄자니아, 코모로스 대표부에서 한 목소리로 뇌교육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2월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광고천재로 불리는 이제석 씨가 소리 없는 언어로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광고를 통한 소셜 캠페인으로서 반전, 기아, 지구환경을 실천하는 이미지들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03 엘살바도르 공교육에 뇌교육 도입

2011년 엘살바도르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요

기 간 : 2011년 6월~ 8월 (3개월)

대 상 : 수도 산살바도르 근교 토나카타 페케 시의 센트로 에스콜랄 디스트릭토 이탈리아 스쿨 학생 39명과 교사 24명

사 업 내 용 : 매주 월~목요일 1시간씩 뇌교육 클래스 운영 및 효과 검증

참여기관 : 국제뇌교육협회, IBREA Foundation, 한국뇌과학연구원

후 원 : 엘살바도르 유엔대표부, 엘살바도르 교육부, IMU (Woman's Institute)

사업 성과

- 학생 결석률 감소, 성차별 감소,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상태 증진이 두드러짐.
- 체험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참여도가 높고 지속적인 교사교육 실시로 호응이 높음.
-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에 고무된 엘살바도르 세렌 부통령이 자국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청했고,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4개 학교에 교육원조를 결정함.

2011년 1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엘살바도르 유엔대표부의 카를로스 가르시아 유엔대사가 참석해, 21세기 뇌과학-교육 융합 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교육방법론에 관한 미국 교육현장의 적용 성공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를로스 유엔대사는 본국에 뇌교육 도입을 제안했고, 2월에 엘살바도르 외교부와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교육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랜 내전의 상처로 사회 폭력문제가 심각한 엘살바도르는 많은 국제기구의 원조가 있지만 교육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낙관적 희망을 갖지 못해 비교적 일찍부터 사회적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엘살바도르의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rain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Report

October 14, 2011

2011년 시범 프로젝트는 엘살바도르 10개 지역 중 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산살바도르의 한 학교에서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간 산살바도르 내 디스트릭토 이탈리아 스쿨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함양과 자신감 증진을 위한 뇌교육 클래스를 운영한 결과 학생 결석률 감소, 성차별 감소,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상태 증진에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출처 : 엘살바도르 뇌교육 파일럿프로젝트 연구평가보고서, 엘살바도르 외교부

2012~13년 한국 교육부 공적개발 원조(ODA)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에 고무된 엘살바도르 세렌 부통령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4개 학교에 교육원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에 실시된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사업은 시범 프로젝트와는 달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주관으로 뇌교육의 학교 정착 및 지속성을 위한 전문교원양성과 교육 컨설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

- **총 기간** : 2012년 7월~2013년 5월
- **2012년 7월~8월** :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그룹 협의,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12년 9월~11월** : 교원양성 교육 및 학생대상 시범 교육 실시
- **2013년 2월~3월** : 보수교육 및 컨설팅
- **2012년 4월~5월** : 성과분석 및 최종 보고

뇌교육 전문교원양성 프로그램

- **대상** : 4개 학교 교사 79명
- **교육 내용** : 뇌교육 5단계에 따른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 총 20차시(각 차시는 1시간 30분)
- **시행결과**

  교원양성 교육 이수율은 총 79명 중 74명이고 교육 만족도 종합 평점은 5.0점 만점에 4.9점으로, 교사들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교사들은 본인들이 받은 교육내용이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려는 목표와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 점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학생대상 시범교육

- **목표**: 교원양성 프로그램과 병행해 학생 대상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교원들에게 실습기회 제공, 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현지 피드백 및 보완
- **대상** : 4개 학교 학생 94명
- **교육 내용** : 뇌교육 1~3단계를 적용한 뇌교육 클래스 총 16차시(각 차시는 1시간 30분)
- **시행결과**

학생 시범교육 효과 분석결과, 초등의 경우 정서조절력과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범교육 종료 2개월 후 검사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등의 경우도 정서조절력과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정감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 실시된 검사와의 비교에서는 정서조절력은 지속효과를 나타냈으나 자아존중감은 지속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사회적, 가정적 자아감이 유지되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의 성과

2012년 글로벌 교육원조 사업은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한국형 공적원조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0세기 빈곤탈출의 대표적인 발전모델인 한국은 선진국 도약의 열쇠로 '교육'을 꼽습니다. 교육은 제도와 인프라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 대상자의 실질적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목표로 삼은 자립할 수 있음을 믿는 실천의지와 함께 빈곤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은 앞으로 엘살바도르의 변화가 지속적이고 자생적으로 일어나도록 돕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1년 시범 프로젝트와는 달리 교사양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교육원조의 성과는 더욱 파급효과가 컸으며 또한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교육원조가 종료된 이후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엘살바도르 거의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1,800여 개 학

교에 뇌교육을 공교육 커리큘럼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엘살바도르 교원복지단체(ISBM)와 국제뇌교육협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3차 뇌교육 보급 프로젝트가 완료될 즈음에는 인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나올 것입니다.

출처 :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뇌교육 컨설팅 및 전문교원 양성》, 한국교육개발원

엘살바도르 토나카타페케 시(市) 디스트릭토 이탈리아에 2012년 10월 17월 '평화의 수영장'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수영장의 건립으로 아이들은 자유롭고 안전한 놀이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체스 세렌 엘살바도르 교육부 장관은 완공식에 참석하여 뇌교육 프로젝트와 수영장 건립을 제안하고 추진한 국제뇌교육협회 이승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Nación : @LPGSocial

KIOSKO LPG

Escuela hace realidad el proyecto de tener piscina

Fue construida en mes y medio gracias al esfuerzo conjunto de IBREA, alcaldía, MINED y comunidad escolar.

GERMAN RIVAS

Una piscina en el corazón de las instalaciones del Centro Escolar Distrito Italia, Tonacatepeque (San Salvador), se ha convertido en el nuevo atractivo de estudiantes, docentes y comunidad en general.

Autoridades municipales, de la escuela y del Ministerio de Educación (MINED), así como representantes de la ONG IBREA, contemplaron ayer orgullosos el fruto de sus esfuerzos.

La construcción de la piscina, que tiene 12.5 metros de ancho por 22.4 metros de largo, con capacidad para 254 metros cúbicos de agua, fue un proyecto enmarcado en la experiencia piloto llamada Educación del Cerebro, que IBREA desarrolla ya en cuatro escuelas del país. Las últimas tres se agregaron el 1.º de septiembre pasado.

"Este día es grandioso porque se escribe una página histórica en nuestra escuela, con la construcción de un espacio pedagógico como el que apreciamos y que IBREA llamó 'Piscina por la paz'. El objetivo primordial de este proyecto es, precisamente, encontrar la paz, ya no de palabras, sino que de hechos", manifestó Edwin Mauricio Pérez Juárez, el director de la escuela en Distrito Italia.

Al evento de inauguración fue invitado el vicepresidente de la República, Salvador Sánchez Cerén, quien al fungir como ministro ad honórem de Educación visitó el centro escolar por ser parte del plan piloto de Escuela Inclusiva de Tiempo Pleno, en momentos en que el Distrito Italia era calificado como una de las zonas más peligrosas en San Salvador.

"Este es un centro de cultura, de conocimiento. La aspiración del país es (tener) una nueva escuela como esta, donde la comunidad y los padres de familia están integrados. Aquí inició el programa de IBREA, que es una filosofía innovadora, consona", dijo Cerén.

Como parte de la inauguración, un grupo de estudiantes, docentes y miembros de IBREA en El Salvador hicieron uso de la piscina por primera vez, dando paso a la alegría y diversión de todos los alumnos que ahora tienen otro lugar de esparcimiento en el interior del centro de estudios.

"Hoy nos podemos divertir más, antes solo lucando pelota".

"El objetivo primordial de este proyecto es encontrar la paz, ya no de palabras, sino que de hechos."
Edwin Mauricio Pérez, director

"Esta piscina forma parte de un gran proyecto, que tiene un fundamento claro: la creencia firme en el enorme potencial del cerebro humano."
Isabel Pastor, representante de IBREA

Diversión. La piscina beneficia a 1,561 alumnos y 43 docentes, así como a toda la comunidad. Tiene capacidad para 254 metros cúbicos de agua y costó 850,000. Parte de los fondos fueron recolectados en Corea y EUA por el presidente de IBREA, Ocho Lee.

LPG QR

2013년 엘살바도르 교육부 — 뇌교육 전문교원 양성 전국 확대 실시

한국 교육부의 원조 종료 후,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2013년 7월부터 10만 달러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문교원 양성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교원복지단체(ISBM, Instituto Salvadoreño de Bienestar Magisterial – the institution taking care of educators' holistic health)가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뇌교육 보급 3차 프로젝트는 엘살바도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현재 177개 학교의 학교장, 건강 관련 전문가 100명, 지역 교육청 장학관 14명이 1차 그룹으로 뇌교육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했으며, 2014년 7월부터 2차 그룹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엘살바도르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학교장에게 뇌교육을 전수하며, 이는 다시 학교장에 의해 학교의 교원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전국 뇌교육 전문교원 양성 프로젝트 진행상황

- 2013년 7월 2일 : 사업 착수 기념식
- 2014년 2월 27일 : 177개 학교의 학교장, 건강 관련 전문가 100명, 지역 교육청 장학관 14명 뇌교육 지도자격 취득
- 2014년 6월 이후 : 200여 명 2차 그룹 뇌교육 전문교원 양성교육 이수

04 2011년 필리핀 타가이타이 시 교원 대상 뇌교육 워크숍

프로젝트 개요

- **기간** : 2011년 10월 28일~30일
- **장소** : 필리핀 타가이타이 시
  St. Scholastica's Center for Spirituality
- **대상** : 학교 교사 및 학교 관계자 20명

국제뇌교육협회는 필리핀 유엔대표부의 필리핀 공교육 도입 검토 요청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서 교사 및 교육부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3일간 뇌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지에서 유니세프 필리핀위원회 디렉터 및 필리핀 교육부와 만나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05 2012~13년 라이베리아 뇌교육 보급사업
—시범 프로젝트 수행과 KOICA 민간사업 발굴 지원

2011년 1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뇌교육 컨퍼런스를 통해 뇌교육의 효과에 관한 보고를 접한 라이베리아는 자국에도 뇌교육 도입 희망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1년간 라이베리아 외교부와의 오랜 논의 끝에 2012년 3월, 2개 학교 3개반을 대상으로 12주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4년간의 긴 내전을 종식하고 2006년 집권한 라이베리아 존슨 셜리프 대통령은 뇌교육이 전쟁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주고 뇌의 가치를 발견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 뇌교육 보급 진행상황

- 2012년 1월 : 라이베리아 교육부 직원 2명, 뇌교육 국제리더십프로그램인 WYL(World Youth Leadership)과 BMC(Brain Management Consultant: 뇌원영관리사) 자격코스 이수
- 2012년 3월 : 2개 학교 3개 반 대상 12주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 실시
- 2012년 5월 : 라이베리아 사범대학 교수 대상 뇌교육 워크숍 개최
- 2013년 10월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의 민간사업 발굴 지원으로 라이베리아 10개 학교의 뇌교육 보급 확대 사업 타당성 조사

2012년 시범 프로젝트 사업성과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뇌교육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뇌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존감, 성별 관계, 고유한 가치, 친구관계, 자제력에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라우마증후군, 트라우마 경험, 성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모두 감소했다. 이 보고

서를 제출한 카멘 롤란드 박사는 이를 바탕으로 뇌교육이 동기부여, 자존감, 친구관계, 자제력, 스트레스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뇌교육 프로그램을 라이베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 교과과목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출처 :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뇌교육 평가보고서》, 카멘 롤란드

06 2013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뇌교육 프로젝트와 지구시민운동' MOU 체결

2012년 라이베리아의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를 접한 시에라리온 정부는 유엔대표부를 통해 뇌교육 도입을 요청해왔습니다.

시에라리온 사회복지부 · 외교부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국제뇌교육협회, 한국 지구시민연합과 2013년 12월 9일 '뇌교육 프로젝트와 지구시민운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뇌교육 프로젝트와 지구시민운동으로 시에라리온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가치를 깨닫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경과

- 12월 2일 시에라리온 외교부 장관 및 교육부 관계자 미팅–시에라리온 외교부 장관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시에라리온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 12월 4일 시에라리온 제2의 도시 보(Bo)에 위치한 여성 ·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원 방문, 교육 가능한 시설 점검 및 관계자 미팅

- 12월 5일 프리타운에 있는 소년원을 방문, 현지 조사 및 수감된 학생들(14~17세)과 스텝 대상 뇌교육 진행–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은 간절히 도움 받기를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소년원에서 나가 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했습니다. 이날 뇌교육 수업으로 아이들이 '모든 사람의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행복해했습니다.

- 12월 6일 시에라리온 사회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시에라리온의 경우 뇌교육에 집중하기보다는 한국의 지구시민연합과 연계한 소년원 물품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시에라리온 사회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지구시민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시에라리온의 청소년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적용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2월 7일 시에라리온 사회복지부 · 외교부, 국제뇌교육협회, 한국 지구시민연합이 MOU 체결

향후 계획

한국 지구시민연합 주관으로 보(Bo)에 있는 직업훈련원에서 지구시민운동과 뇌교육 과정을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공합니다. 직업훈련원에서의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국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동시에 소년원에는 공책이나 연필 등 학업에 필요한 기초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7 2014년 파라과이 교원 대상 뇌교육 국제연수

연수개요

- **교육과정** : 뇌교육의 이해와 체험
- **강사** : 김나옥 국제뇌교육협회 부회장
- **대상** : 파라과이 교사 20명
- **장소** : 충북 단재연수원
- **일시** :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3시간)

강의 개요 및 목표

뇌교육의 원리, 기본적인 실습체험, 해외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 뇌교육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국제뇌교육협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014 파라과이 선도 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파라과이 교육문화부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뇌교육의 이해와 체험' 국제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파라과이 교육문화부 교원 20명을 초청, ICT 기반 수업설계, 스마트교육, 교육현장 견학 및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뇌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뇌체조, 자기명상 등 실습 기본체험, 중남미 엘살바도르 뇌교육 성공사례 공유 등 3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수를 진행한 김나옥 국제뇌교육협회 부회장은 "홍익인간의 전인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뇌교육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해 언어, 문화, 지식에 상관없이 뇌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강점"이라며 "뇌교육을 통한 해외 교육원조 성과가 두드러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파라과이 에반헬리까 교육대학 교수인 에드가르 오스발두 브리수엘라 베라 연수단장은 "한국의 뇌교육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정서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 같다. 한국과 협력이 잘되어 파라과이 학교에도 뇌교육이 보급될 날을 기대한다. 한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연수소감을 전했습니다.

5

한국 공교육 지원사업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뇌교육의 역할 — 42

2.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개최 — 44

- 행사개요
- 주요 사례 발표

21세기 뇌융합시대 — 뇌교육희망보고서
중남미 엘살바도르에 꽃피운 뇌교육 프로젝트
교육부 글로벌 교육원조 경과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한국, 충북 형석고등학교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 한국, 울산 강남중학교
두뇌친화적 환경과 행복교실 만들기 — 한국, 대전 유평초등학교
교사들의 꿈과 열정을 회복하는 교사 힐링캠프
[Special Page] 해피스쿨 캠페인이란?

0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뇌교육의 역할

한국 청소년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5년 연속 OECD 국가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2년 학교폭력과 성적비관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한국교육에 대한 자성과 인성교육의 강화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제뇌교육협회는 2013~14년 2년에 걸쳐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인성교육의 성공사례로서 국내외 뇌교육 도입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2007년 시작되어 600개가 넘는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해피스쿨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조절력과 자기성찰 능력이 향상되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된 많은 사례들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실천적 교육방법론으로서의 뇌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엘살바도르 교육원조 수혜학교 중 하나인 호아킨 로데스토 학교장이 한국을 방문해 뇌교육을 통해 학교와 엘살바도르 청소년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학교의 사례는 언론뿐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엘살바도르 공교육에 적용한 뇌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이 된 한국의 '해피스쿨 캠페인'(본 보고서 59페이지 참조)이 다시 한 번 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이며, 노동현장뿐 아니라 기업, 학교, 가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의 인권 증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행복추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뇌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을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교육계와 공유함으로써 이 원칙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공교육 뇌교육 보급 현황]

1. 해피스쿨 캠페인 협약 학교 (누적)

2. 뇌교육 직무연수 이수 교사

총 4,087 명

※교원연수는 국제뇌교육협회 인증기관인 (사)한국뇌교육원이 한국 시 · 도교육청에 지정승인을 받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때 30시간 뇌교육 직무연수 과정으로 운영하는 연수입니다.

3. 뇌교육 이수 학생
(2014년 9월 현재)

총 108,110명

4. 유아 뇌교육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2014년 9월 현재)

총 212곳

02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개최

행사개요

– 2013년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 **주제** : 뇌, 행복교육을 말하다
- **일시** : 2013년 8월~11월
-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 **후원** : 교육부, 브레인트레이너협회
- **개최 도시** : 대구, 인천, 청주 부산, 서울 등 5개 도시
- **참가 대상** :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

– 2014년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 **주제** : 뇌과학 기반 인성교육으로서 뇌교육의 효과
- **일시** : 2014년 5월~6월
- **주최** : 국제뇌교육협회
- **후원** : 교육부,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브레인트레이너협회
- **개최 도시** : 울산, 대전, 순천 등 3개 도시
- **참가자** :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

주요 사례 발표

- 21세기 뇌융합시대, 뇌교육 희망보고서
  – 김나옥 국제뇌교육협회 부회장
- 중남미 엘살바도르에 꽃피운 뇌교육 프로젝트
  – 글로리아 뮬러 엘살바도르 호아킨 로데스토 학교 교장
- 교육부 글로벌 교육원조 경과보고
  – 하태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교수
- '해피스쿨' 캠페인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이윤성 충북 형석중학교 교사
-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 송영순 울산광역시 강남중학교 교장
- 두뇌친화적 교육환경과 행복교실 만들기
  – 윤서영 대전광역시 유평초등학교 교사
- 교사들이 꿈과 열정을 회복하는 교사 힐링캠프
  – 고병진 홍익교원연합 대표

21세기 뇌융합시대, 뇌교육희망보고서

발표자 : 김나옥 국제뇌교육협회 부회장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과 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뇌에 있습니다. 학습활동, 내적인 동기부여, 정서조절 등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뇌는 정신적 재해, 가난, 분쟁,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산이자 모든 창조의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뇌가 지닌 진정한 가치인 평화와 창조의 능력을 깨울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21세기 인류문명은 뇌과학의 발달을 시작으로 뇌건강으로, 뇌교육으로, 뇌문화로, 정신문명으로 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달은 인간 뇌에 대한 이해와 학습능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립된 뇌교육은 인간 뇌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 평생 발달한다는 '뇌의 가소성 원리'를 기반으로 몸의 오감 전체를 활용하고 집중을 통해 내면의 감각을 활성화시켜 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체험적 교육방법론입니다.

뇌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인성, 학습력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뇌를 활성화시키는 신체활동,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을 함양하는 활동, 정서를 조절하는 활동, 생활에서의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뇌교육은 학교폭력이나 자살, 학업 스트레스로 얼룩진 청소년 멘탈헬스를 증진시켜주는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또한 나와 가족만의 행복이 아닌 인류의 행복과 평화실현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홍익정신을 가르치는 글로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 학술, 연구, 인재양성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아래 뇌교육의 국제적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라이베리아 등 개발도상국에 뇌교육 원조가 이루어지는 한편, 미국에서도 300여 학교에 뇌교육이 도입되어 학생들의 출석률이 높아지고 교사에 대해 예절 발라지고 학습태도가 달라진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아 워싱턴 DC, 뉴욕시, 하와이 등 미국 26개 도시에서 '뇌교육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독일에도 13개 공교육에도 뇌교육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2013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기조강연 중)

중남미 엘살바도르에 꽃피운 뇌교육 프로젝트

발표자 : 글로리아 뮬러 엘살바도르 호아킨 로데스토 학교 교장

호아킨 로데스노(Jaquin Rodezno) 학교는 2012년~13년 엘살바도르 글로벌 교육원조 프로젝트가 시행된 4개 학교 중 하나입니다. 글로리아 뮬러 교장은 각종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통해 뇌교육을 하기 전후의 학교상황을 진솔하게 보여주었는데, 학교폭력과 마약이 심각했던 호아킨 로데스토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뮬러 교장은 "거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학교폭력과 마약이 줄었다. 학교평가에서 늘 꼴찌였던 성적이 전국수학능력평가에서 1등을 해냈다. 고학년은 저학년을 도와주고, 경찰과 싸우던 학생들이 경찰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뮬러 교장은 "뇌교육은 학생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뇌교육을 통해 교사들도 변하고 엘살바도르 교육계도 바뀌고 있다. 뇌교육은 오랜 내전으로 마약, 폭력, 살인 등의 문제가 심각한 엘살바도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일깨우고 꿈과 희망을 주었다. 이런 뇌교육이 탄생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을 가장 가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발표자료화면

글로리아 뮬러 교장은 심포지엄이 끝난 후 우리나라 국회, 교육부, 교육청을 일일이 방문해 감사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8월 20일, 뮬러 교장과 만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면담 자리에서 "학교폭력과 마약 문제를 해결한 뇌교육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한국 교육현장을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학교를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육부 글로벌 교육원조 경과 보고

발표자 : 하태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교수

- **사업명** :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 전문교원 양성 및 뇌교육 컨설팅)
- **연구기간** : 2012년 7월 23일 ~ 2013년 5월 10일
- **연구지원** : 교육부
- **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수행기관**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추진배경

2011년 엘살바도르 1개 학교 대상 뇌교육 시범 프로젝트 후 확대 적용을 위해 엘살바도르 교육부 장관이 교육원조를 공식 요청

학생들에 대한 엘살바도르 교육부의 고민

1. 주위 환경과 어려움 극복이 힘들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강함.
2.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음.
3. 학교를 쉽게 중도 포기, 폭력과 범죄에 노출

사업 내용

- 4개 학교 교사 79명 대상 뇌교육 프로그램 20차시 실시
- 4개학교 학생 94명 대상 뇌교육 클래스 16차시 실시
- 원조 이후의 현지화를 위해 현지 교원양성과 컨설팅에 중점

사업 성과

2012~13년 엘살바도르의 '글로벌 교육원조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사후 분석을 진행한 하태민 교수는 수원국이 직면한 교육현장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원조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원조'에 초점을 둔 점, 엘살바도르 정보의 요청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정부 관계자와 많은 협의를 거친 수원국 맞춤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요인을 들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한 것은 교육 이수율과 교육 만족도였습니다. 교육 참여여부가 선택인 점을 감안할 때 첫 번째 지표인 교육 이수율은 93.7 퍼센트(79명 참가에 74명 이수)로서 교육이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원양성 교육의 두 번째 평가지표인 교육 만족도에서는 5점 만점에서 4.9점으로, 교사들은 본인들이 받은 교육내용이 엘살바도르 학생들의 정서조절과 자존

▲엘살바도르 뇌교육 전문교원양성과 학생대상 시범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

감을 향상시키는 목표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원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된 학생 대상 시범교육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초등의 경우 정서조절력과 자존감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 종료 후 수집된 추후 검사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등의 경우도 정서조절력과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에서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은 사업종료 후 실시된 검사에서도 지속효과가 나타났으나, 자존감은 유의미한 지속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존감이 유지될 수 없는 사회적 · 가정적 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인지적 조절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환경의 영향으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후속 사업(진행 중)

엘살바도르 교육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뇌교육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2014년 2월까지 177개 학교의 학교장, 건강 관련 전문가 100명, 지역교육청 장학관 14명이 뇌교육 지도자격 취득)

발표자료화면

▲교원양성교육 이수율 및 교육만족도

▲학생대상 시범교육 결과(사전, 사후, 사업종료 2개월 후 측정)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 한국, 충북 형석고등학교

이윤성 교사

형석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해피스쿨'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서로 교류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형석고등학교의 사례는 2012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열린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책제안 공모전'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명 : '러브핸즈'로 행복의 마중물을 채워요
보고기간 : 2011년 3월~2012년 6월

●사업추진배경

무겁고 삭막한 분위기에서 감정조절이 힘든 학생들이 많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와 서로 마음을 교류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

●사업내용

러브핸즈(Love Hands)는 서로 존중하고 교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해피스쿨 캠페인 중 하나로, 사랑을 담아 친구의 어깨를 안마해주고 사랑을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형석고등학교는 러브핸즈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 상대를 자신처럼 소중히 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길러주고자 했습니다.

●주요 캠페인 활동 내용

1. 뇌체조/호흡/명상시간 운영

- **목적** :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기
- **운영방법** : 매일 학급별로 호흡명상 CD를 활용해 학생강사가 지도

2. 러브핸즈데이 운영

- 일시 : 매주 금요일
- 대상 : 전교생
- 방법 : 친구 누구에게나 3명 이상에게 러브핸즈로 사랑의 마음 전하기

3. 교내 한계도전 대회

- 목적 : 학생들이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맞닥뜨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 대상 : 1, 2 학년 전체
- 장소 : 체육관
- 방법 : 용쓰기, 학다리 집중자세를 정해진 시간 동안 지속

4. 절문화 운동

- 방법 : 친구들끼리 만나도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허리 숙여 인사하기
- 참가대상 : 전교생
- 효과 :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

● 사업성과

1. 학교폭력 빈도 현저히 감소

– 그린마일리지 교내봉사 대상자
2010년 연 29명 → 2011년 14명

– 그린마일리지 사회봉사 대상자
2010년 연 4명 → 2011년 2명

– 사안 발생빈도 감소
2010년 3회 → 2011년 1회

2.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평가 향상

형석고등학교는 2009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의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해피스쿨 캠페인을 시작하고 2년간 형석고등학교 신입생 지원현황을 보면, 우수학생 지원율이 3년 사이 1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형석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연도별 학점 분포 현황

그리고 전체 학생 지원율이 정원의 50~60퍼센트 수준에서 2011년에는 88.5퍼센트(124명)로 올라 지역 학생의 지원비율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 러브핸즈체조/명상 활동 학생 나눔

1) 1학년 남학생

처음 할 때는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꾸준한 체조&명상의 설명과 효과 등 많은 흥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나도 저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3개월 동안 체조&명상을 해온 결과, 아주 작은 효과지만 내가 좀 더 밝아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간단한 체조일 뿐인데,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나의 색깔을 바꿔놓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은 우리 학교에서 체조&명상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더 많은 체조&명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을 더 늘리면 더 많은 친구들이 저 같이 작은 효과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학급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랑주기 할 때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2학년 남학생

사실 장난도 많이 하고 수업시간에도 산만해서 선생님들께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매일 열심히 하지는 않아도 체조&명상시간에 따라하게 되니까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나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명상내용이 있어요. '천국의 식사'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줘야 상대방도 내게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참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3) 3학년 남학생

사실 명상이라고 하면 왠지 어색하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가장 좋아진 점은 선생님과 친해졌다는 사실 같아요. 친구들과 지낼 때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친구의 마음이 이해되니까 선생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배려와 소통의 학교문화 만들기 – 한국, 울산 강남중학교

발표 : 송영순 교장

도시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울산 강남중학교 학생들은 해피스쿨 캠페인 시작 당시, 학업성취도가 울산시 60개 중학교 중 59위였고 자신감과 자긍심이 낮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2010년 2월 해피스쿨 캠페인 협약을 맺고 우선 학교에서의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대신 '사랑합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아침 명상, 행복 게시판 운영, 뇌교육 리더십 진로 캠프, 가족 힐링캠프 등 다양한 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자신감, 감정조절능력이 높아지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강남중학교는 2012년, 2013년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이후 울산 시내 학력 최우수 학교와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신체/정서/인지를 통합적인 발달시키는 인성교육 강화
-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 형성
- 학부모/학교/사회가 함께 두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참여하는 기회 마련

● 단계별 세부목표

소통/공감 인성교육 → 학업능력 UP 프로그램 → 학부모 교육, 교사 뇌교육 연수 지원 → 뇌교육 가족인성 캠프 운영 →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대상	프로그램
학생	명상 수업(행복한 아침 명상, 나와 만나는 명상, 하나되기 명상) 행복 게시판 운영 또래 상담자 교육 해피브레인 인성 수업 뇌교육 체험 수업 선도 프로그램 집중력 코칭 리더십 향상 프로젝트 또래 상담자 상담역량 강화 캠프 뇌교육 리더십 캠프 금연 프로그램
학부모	공부의 달인을 만드는 멘토 코칭 내 자녀를 위한 정서 코칭 뇌교육 진로 코칭
교사	울산 뇌교육 교사 연수 지원 울산 뇌교육교과연구회 지원
가정	우리가족 힐링캠프 (1차–3학년 대상, 2차–1, 2학년 대상, 3차 – 정서 행동특성검사 관리군 및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

주요 운영 프로그램 소개

1. 소통과 공감의 장, 행복 게시판 운영

- 운영방법
  - 긍정적인 정서를 기르는 행복소식지 발행
  - 학생들의 소리를 듣는 여론마당 운영
  - 사랑/힐링/감사 등의 테마로 행복데이 운영

• 운영효과

–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형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 실천하는 인성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 함양

[행복게시판 운영모습]

2. 명상수업

• 운영방법

– 아침 자습 시간 10~15분

– '행복한 아침' '하나되기 명상' '나와 만나는 명상'의 주제별로 제작된 동영상을 보며 명상

– 활동지 작성

• 운영효과

–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정서적 안정으로 두뇌친화적인 학급 분위기 형성 및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 집중력 향상으로 학습능력에 도움

– 하루를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자기관리 습관형성

명상의 효과 설문조사 결과

• 행복한 아침 명상의 효과

• 하나되기 명상의 효과

• 나와 만나는 명상의 효과

3. 해피브레인 인성 수업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창의체험 활동시간
- 대상 : 2학년 4개 반
- 내용 : 매시간 뇌체조, 명상, 뇌 선언문 실시. 행복을 만드는 뇌 이야기, 마음을 여는 소통놀이, 밝고 강한 나, 나라사랑 마음 키우기 등의 테마로 활동

• 효과
-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
- 자신의 소중함 인식
- 나의 행복에서 우리의 행복, 학교의 행복으로 의식의 확장

4. 뇌교육 리더십 캠프

• 운영방법 : 방학기간 5시간 캠프

• 내용
- 뇌운영시스템(Brain Operating System, BOS)의 이해
- 에너지의 원리, 끌어당김의 법칙 체험
- 메타인지로 습관 바라보기
- 뇌를 통한 자기 이해
- 적성과 직업의 관계 이해
- 홍익의 정신을 담은 성장드라마 설계

• 효과
-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의미를 깨닫게 됨
-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봄으로써 21세기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

5. 우리가족 힐링캠프

• 운영방법
- 1차 : 3학년 학생과 학부모

– 2차 :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 3차 :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

• 내용
– 나의 가족 소개하기
– 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 명상으로 나 바라보기
– 눈으로 말하기
– 가슴으로 안아주기
– 힐링해주기

• 효과
– 부모/자녀 간에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오해와 갈등 해소의 기회
– 부모/자녀의 소통방법 연습으로 학생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

비전을 다지는 계기

6. 또래 상담자 교육

• 또래 상담자 정기교육
– 대상 : 또래 상담자 3학년
– 내용 : 에너지 집중력 스톤을 활용한 에너지 느끼기 체험, 에너지 교류로 공감 체험
– 효과 : 또래 상담자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지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공감능력이 증대

• 또래 상담자 역량강화 캠프
– 대상 : 또래 상담자 1, 2, 3학년
– 내용 : 단합 미션 수행, 하나되기 게임, 사랑주기, 먼저 다가가기 활동
– 효과 : 또래 상담자간의 친밀감이 커지고 사명과

두뇌친화적 환경과 행복교실 만들기–한국, 대전 유평초등학교

발표자 : 윤서영 교사

유평초등학교의 윤서영 교사는 2008년부터 두뇌친화적 환경과 행복한 교실문화 조성을 위해 뇌교육 프로그램을 학급운영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두뇌친화적 환경이란 아이들이 자신의 뇌가 가진 능력을 100퍼센트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입니다. 윤서영 교사는 뇌체조/명상 시간 운영, '실수 OK 문화' 조성 등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자아선언문

• 활동 내용

– 첫째 날 : 의자 위에 올라가 자기 소개하기

– 둘째 날 : 자기 칭찬을 세 문장으로 표현하기

– 셋째 날 :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 학생 소감

– 처음엔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하고 나니 뿌듯하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4학년)

– 그 동안 수업시간에 손도 잘 안 들고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발표를 잘한다. (4학년)

2. 매일 아침 10 분 뇌체조

• 활동 내용

아침 자습시간 10분 동안 뇌와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체조 실시

• 학생 소감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 스트레스를 푸는 뇌체조가 좋다.

– 공부시간에 배우는 것이 쏙쏙 머리에 입력되었다.

– 키가 커지고 허리도 많이 좋아졌으며 집중이 잘

된다.

3. 매일 아침 5분 뇌파조절 명상

- **활동내용** : 뇌체조 후 5분 정도 에너지 집중명상이나 자기사랑명상 실시
- **효과** : 뇌파가 안정되면서 정서조절과 집중력 향상의 효과가 있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나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 생김.
- **학생소감**
  - –자기사랑명상을 하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이것은 단지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나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며 자신감이 생겼다. (5학년)
  -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화났던 일들이 명상으로 인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뇌도 안정되었다. (5학년)

4. 사랑주기

- **활동내용** : 사랑하는 마음으로 짝꿍 어깨 주물러주기
- **효과** : 스킨십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김.
- **학생소감**
  - –처음엔 친구 때문에 화나고 사이가 나빴었는데 지금은 기분이 좋고 사이가 좋아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니까 손이 따뜻했다. 친구가 더 좋아졌다. (4학년)
  - –친구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4학년)
  - – 눈물이 났다. 다음부터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겠다. (1학년)

5. 실수 OK 학급문화

- **활동내용** : 실수할 때 스스로 "실수 OK,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기
- **효과** : 비교와 평가로 긴장해 있는 뇌를 회복시키고 무한한 자신감을 부활시켜 줌.

6. 홍익생활 실천

- **활동내용** : 매일 학교나 가정에서 3가지 홍익 실천하기
- **효과** :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체험이 생긴다.
- **학생소감**
  - –홍익을 실천할 때마다 뿌듯하다. 홍익은 사소한 일이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의 보배라고 생각한다.
  - –착한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행복하니까 왠지 내가 뭔가 큰일을 한 느낌이 난다.

교사들이 꿈과 열정을 회복하는 교사 힐링캠프

발표자 : 고병진 홍익교원연합 대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교사 힐링캠프는 교권추락으로 현저히 떨어진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직무연수의 일종으로, 뇌교육의 5단계 원리를 적용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동주최로 2012년 9월과 12월, 2013년 1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힐링캠프는 제1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한 학교폭력예방 정책제안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주최** :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 **주관** :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사)한국뇌교육원
- **기간** : 각 기수 2박 3일 30시간
- **대상** : 경북지역 생활지도 담당교사 총 88명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각종 업무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소를 얻은 정말 행복한 연수였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연수 설문조사 결과 96퍼센트 이상 이번 연수가 도움이 되었으며, 동료 교사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캠프 이수 후 나눔

–요즘 명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생들만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문제가 교사들에게 있다는 사회 분위기에 교직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교육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는데 힐링캠프는 교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로서 내가 누구인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체활동과 지덕체를 고루 활성화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은 여타 연수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확산되어야 한다.

발표자료화면

해피스쿨 캠페인이란?

해피스쿨 캠페인은 뇌교육의 원리를 적용해 뇌를 잘 쓰는 학교, 서로 통하는 학교, 흡연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모토로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2007년 국제뇌교육협회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공동제안으로 시작되어 지역 뇌교육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600개가 넘는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피스쿨 캠페인이 학교폭력의 해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본 프로그램인 뇌체조 등의 신체활동과 뇌교육 명상으로 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과 자기성찰 능력이 커져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고 학교폭력에서 멀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협약을 맺은 학교에는 방송수업용 뇌체조/명상 CD를 제공하고, 담당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실정에 맞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합니다.
www.happyschool21.net

대상별 특별 프로그램

- **학생 대상** : 청소년 뇌활용 교육, 흡연/폭력 예방 및 선도학생 교육, 청소년 뇌교육 인성수련, 나라사랑 교육, 방과 후 학교 등
- **교사 대상** : 뇌교육 강의, 행복한 학급경영 연수 등
- **학부모 대상** : 뇌교육 부모 특강, 뇌교육 부모 연수 등

해피스쿨 뇌교육 기본 프로그램

1. 몸과 뇌를 깨우는 뇌체조

몸이 활기찬 상태일 때 뇌가 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5분 정도 간단한 뇌체조만으로도 뇌와 신체를 활성화시켜 두뇌를 학습준비 모드로 만들어줍니다. 뇌체조를 하면 심신의 피로감과 학업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활기차고 의욕적인 상태가 됩니다.

2. 우뇌를 활성화하는 뇌파진동

뇌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바탕은 집중과 상상에 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진동을 확산시키는 뇌파진동은 뇌파를 조절하고 우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뇌파진동을 하면 뇌파가 안정되게 조절이 되고, 우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집중력, 직관력, 상상력이 향상됩니다.

3. 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장생보법

청소년들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 관련 질환이 많습니다. 자세가 바를 때 두뇌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이 형성되는 겁니다. 장생보법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활기차고 건강해져, 마음도 편안해지고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게 됩니다.

4. 뇌파를 안정시키는 지감명상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최적의 두뇌상태는 알파파 뇌파상태입니다. 산만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특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감명상을 하면 뇌파를 알파파로 안정화시켜주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성찰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5. 두뇌친화적인 교실 분위기 만들기 : 사랑주기, 웃음체조

뇌는 에너지장(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밝고 따뜻한 학급 분위기는 두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두뇌친화적인 환경일 때 뇌는 정보 수용적이 되고 긍정적이 됩니다. 웃음, 사랑주기를 하면 친밀한 교우관계가 형성되고 교실분위기가 밝아지며, 특히 왕따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뇌력을 키우는 HSP GYM

뇌는 도전을 좋아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체험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는 뇌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HSP Gym을 하면 집중력, 인내력, 자기조절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감정조절의 힘이 커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7. 3초 인사, 공부하는 목적

뇌를 쓰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크고 밝은 가치 있는 꿈이 있을 때 뇌의 잠재된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초 인사는 아랫배에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인데, 이런 인사문화는 존중과 예절바른 태도를 길러줍니다. 그리고 홍익의 가치를 심어줄 때 뇌는 활발하게 작동됩니다. 뇌교육에서는 공부하는 목적을 "나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공부합니다." 라는 데 둡니다. 수업 전에 공부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면 학습의 동기부여도 잘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태도가 좋아집니다.

1. 몸과 뇌를 깨우는 뇌체조 2. 우뇌를 활성화하는 뇌파진동 3. 뇌파를 안정시키는 지감명상
4. 두뇌친화적인 교실 분위기 만들기 : 사랑주기, 웃음체조 5. 뇌력을 키우는 HSP GYM 6. 3초 인사, 공부하는 목적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발행

평화실현을 위한 뇌 활용지식의 대중화

뇌는 요원해 보이던 인류평화 실현을 위한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로로서 뇌를 활용함으로써 인류는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레인〉은 이 같은 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하는 뇌교육 전문지입니다. 2002년 국내 최초의 뇌 전문지 〈뇌〉라는 제호로 창간되어, 2006년부터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으로 한국뇌과학연구원과 공동발행하고 있습니다.

www.brainmedia.co.kr

지구시민운동

뇌교육의 바탕이 되는 홍익인간의 철학은 특정 인종, 종교, 국가를 넘어서 지구라는 공통의 삶의 뿌리를 토대로 지구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하는 지구시민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에서 제안한 이 캠페인을 통해 2010년까지 전 세계 13만 명이 지구환경 및 인간성 회복, 기아구호, 문맹퇴치 등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실천에 동참해왔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감사장과 인증서

현재, 지구시민운동의 글로벌 추진기관인 국제뇌교육협회는
'UNEP- Billion Tree Campaign'의 NGO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의 지구살리기의 일환인 'Billion Tree Campaign Program'에
국제뇌교육협회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후원이 국제뇌교육협회의 '지구시민 1달러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의 노력과 그들이 후원한 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후원기금은 캠페인과 연관된 활동에 쓰여질 것이며,
유엔환경계획은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 관계를 기대합니다.

유엔환경계획 케냐본부 사무국

유엔환경계획 '70억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

국제뇌교육협회는 2008년부터 글로벌 지구시민 캠페인인 1달러깨달음운동(One Dollar Campaign)으로 적립된 기부금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70억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2008년 국제뇌교육협회 일본 지부의 참여로 시작되어, 2009년 6월에는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Billion Tree Campaign Partners' 지위를 부여받았고, 2009년 두 차례의 후원으로 약 4,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그동안의 후원에 대해 유엔환경계획 케냐 본부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UNEP – Billion Tree Campaign'은 지구 온난화의 위협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시작된 글로벌 지구환경 캠페인으로 유엔 산하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해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10억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했으나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자, 70억 그루 나무심기로 목표가 수정이 되었고 2009년 말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UN 기후변화 캠페인 'Seal the Deal' 참여

국제뇌교육협회는 2009년 12월, '지구를 위한 지구시민 1분 액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구시민운동연합과 함께 UN 기후청

원 캠페인인 'Seal the Deal'에 참여했습니다. 지구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명 참여와 온라인 홍보활동을 안내했습니다.

지구시민운동연합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1월 24일 29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0.07퍼센트에 불과했던 한국인 참여도는 불과 2주 만에 7,000명 선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뜨거운 활동에 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담당 부서는 높은 한국의 참여에 감사하며 지구시민운동연합을 'Seal the Deal' 공식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Seal the Deal'은 2009년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진행된 캠페인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 전 세계의 정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과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1천 개 뇌교육센터, 기후변화 캠페인 '지구시간(Earth Hour)' 동참

국제뇌교육협회는 2009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 1천 개 뇌교육센터와 함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1시간 불끄기 운동인 '지구시간(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회장은 전 세계 1천개 뇌교육센터의 '지구시간'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며 "인류가 당면한 위기는 결국 누구나가 가진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뇌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동참한다면 우리 스스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

국제뇌교육협회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국제뇌교육협회는 21세기 인류 미래의 키워드인 '뇌' 자산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뇌교육의 개발 및 보급, 인증,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2006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첫 국제뇌교육컨퍼런스를 개최했고, 2009년 2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회원사가 되었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로 등록되었습니다.

www.ibrea.org | 한국사무국 02 3452 9046